

불자 세상보기

곽 대 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력범죄 대책마련 시급

경기도 서남부지역에서 7명의 여성들을 연쇄적으로 살인한 범인이 경찰의 끈질긴 탐문수사와 효과적인 과학수사 때문에 결국 검거됐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누구나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많은 여성들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누구도 믿지 못하는 불신풍조가 팽배하고 있다.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국민의 60% 가량이 밤중에 혼자 걷기를 무서워할 만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해 있다. 형사사법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사회의 범죄발생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번의 연쇄살인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의 일등공신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과 유전자감식기술이다. 즉, 이러한 두 가지의 과학수사기법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확실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많은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CCTV의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범용 CCTV는 하루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특정지역의 상황에 대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범죄수사에 필요한 현장정보를 제공해 범인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잠재적 범죄자로 해금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의 두려움을 증가시켜 범행기회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범행을 억제시키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유전자감식기법은 유전자의 염기서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범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1980년대 중반에 도입된 이후에 범죄수사뿐만 아니라 대형 재난 · 재해사건의 희생자 신원파악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전자분석수준은 서래마을 영아유기사건의 해결과 괌 여객기추락사건에서의 신원확인 작업수행 등에서 보듯이 세계적이다. 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인 강호순은 경찰에 검거된 이후에 범행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다. 그런데 범인이 연쇄살인 행각을 자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결정적인 증거는 자신의 점퍼에 묻어 있던 극소량의 핏자국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발견한 피해여성의 유전자였다.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식작업으로 핏자국의 주인이 지난해 11월에 실종된 주부 김 모씨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유전자감식기법을 통한 범죄수사는 발생한 사건에서 수집된 여러 가지 증거자료들을 분석하는 데만 활용되고 근거법률의 부재로 인해 재범가능성이 높은 전과자의 유전자정보를 저장해 두었다가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대조하는 방식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살인사건이나 성폭력사건 등이 발생하였을 때 유전자분석기법을 더욱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범죄자의 유전자정보를 수집해 보관하는 유전자 정보은행의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CCTV와 유전자정보은행은 인권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더 큰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는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보다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범죄예방과 빠른 범인검거를 위해서는 과학수사의 기초 인프라가 될 수 있는 CCTV의 설치를 확대하고 유전자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조속히 실현해야할 것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조계종 신도증 변신의 '딜레마'

조계종의 신도증이 생명을 얻는다고 한다. 그간 신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의 기능뿐이었던 것이 이제 생활 구석구석에서 요모조모 필요한 알뜰살림의 도반이 된다는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이 올 4월부터 신도증의 기능을 대폭 변신시킨다는 소식이다. 그간 당해 사찰신도들에게만 무료입장 혜택을 주었던 문화재관람료 사찰 출입에 신도증이 있는 모든 불자에게 무료입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포교원이 기획하고 있는 이 같은 생활 속의 혜택은 무려 108가지나 될 것이라고 한다. 조계종 신도증이 신분증의 기능을 넘어 생활필수품이 되는 것이다. 1996년부터 신도등록 사업을 펼쳐 온 포교원은 그간 40여 만 명의 등록을 받았다. 당초 목표의 20%선이다. 그래서 '불자는 많은데 신도는 적다'는 허탈한 자조를 받아 왔던 것이다.

그런데 포교원은 그간 미납된 신도교무금의 경우 완납을 전제로 혜택 많은 신도증을 발급할 방침인 것 같다. 40만여 명의 기 등록자 가운데 교무금 미납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새로운 신도증을 위해 미납금을 완납할 것이냐 마느냐에 대한 의사결정 경향은 아직 예측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그간 등록한 신도들마저 이탈할 수도 있고 획기적인 신도등록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교무금 미납자에 대한 처리무제는 심각한 딜레마다. 조계종 신도증의 변신이 불자들에게 새로운 '자부심'이 되고 사찰이나 종단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신도관리의 전형이 될 것인지 주목된다.

대승적 합의 · 용단 필요한 '서불대'

근래에 설립된 대학원대학은 기존의 교육 체계에 비해 후발주자라는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 특수 분야의 연구를 선택해 대학원대학들은 나름대로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면학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불교계에는 동방대학원대학교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요즘 이 두 학교가 극명하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방대학원대학의 경우 올해 5명의 박사를 배출한다. 학교의 특성에 맞게 서화예술 분야와 미래예측, 명상치료, 옻칠조형 등의 분야에서 골고루 박사를 배출한다. 반면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그 명칭에 포함된 '불교'가 무색하리만치 긴 내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사회의 권한 행사와 이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갈등의 큰 양상이다. 지난해 무더기 제적 사태 등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은 학교 입장에서 올해는 일신된 모습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이미지 관리가 매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새 학기를 앞두고 연일 성명서가 나오는 등 강경한 대립양상은 그침이 없다.

학교의 위상은 한 두 사람의 노력으로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재단의 경영마인드가 탄탄해야 한다. 재단의 결정이 교수와 학생 교직원의 반발을 산다는 것은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학교의 존립 동력을 잃어버리는 일이다. 학내의 문제가 성명전으로 치닫고 있는 한 발전 모드는 가동되지 못한다. 지금의 먹구름을 걷어내는 데는 대승적 합의와 용단이 모두 필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모든 생명체를 부처님으로

2월의 테마-예경공양

입춘이 지나고 날씨가 점차 따뜻해져 가고 있다. 연구실 앞 호수에는 얼었던 물이 녹고 겨울에는 보이지 않던 백로들도 나무위에 많이 날아와 앉아 있다. 작년 봄에 호수 한 가운데 섬에 백로가 몇 마리가 날아와서 바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서울 한복판 교정에 백로가 날아오는 것이 궁금해 전공 교수님께 물으니 한강이 물이 깊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물을 먹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생님 말씀이 섬 주변에 새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나무 말뚝을 박아 주면 많은 새가 날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내가 학교 본부에 건의를 하겠다고 했더니 본인이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 직원들이 나무 말뚝을 박고 있었고, 그 뒤에 백로가 날라오는 것이 늘어 지난해에는 30여 마리까지 늘었다. 백로가 호수 위를 날기 시작하면서 교정은 학문의 열정과 멋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됐다.

<화엄경> '보현행원품'을 보면 보현보살의 열 가지 행원 중에서 첫째가 예경공양이다. "선남자여,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일체불찰 극미진수 모든 부처님을 내가 보현행원의 원력으로 눈앞에 대하듯 깊은 믿음을 내어서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을 다해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되…."

보현보살이 예경공양하는 것은 사람만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성을 가진 존재를 다 공경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현보살의 예경공양을 실현할 수 있을까?

불자는 부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 부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사람이다. 그런데 불자는 사람만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부처님처럼 모시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처님과 같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하고, 바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계율을 지켜야 한다. 불교의 교리는 이렇게 간단하다.

우리가 예경하고 공경하는 것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이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생명체가 불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사람과 생명체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과 생명체가 부처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진실한 예경공양이 될 것이다. 부처가 되기 전에는 중생이다. 중생은 살아 가면서 어려움이 많다.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마셔야 한다.

호수에 말뚝 몇 개를 박자, 서울 한복판에 백로가 날라와 단숨에 교정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을 보면서 불자로서 다른 생명체를 바르게 예경공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지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모두는 모든 생명체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해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생명체가 잘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지혜를 갖춰 진정으로 부처님을 예경공양하도록 하자.

정기웅
건국대 법대 교수
법학박사



범음범패 학인모집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에서는 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뜻이 있는 출가 수행승려와 재가불자님께 수강생을 모집 하고자 알립니다.

◈ 자 격 :
1. 삭발염의한 출가승려 2. 불교와의 특별히 인연이 있는 분 (재가불자)
◈ 교육기간 : 1년과정 (초급반 : 6개월과정)
◈ 교육내용 : 불교 각단 예불 및 천도재의식

1. 각종 전문 재 의 식 | 2. 사 물 다루는법 | 3. 천수바라 | 4. 사다라니바라 | 5. 오공양작법 | 6. 요잡

불교의식무용반 : 연화무, 해원무, 학춤 / 연구반 : 안정사범음범패

◈ 수 강 일 : 매주 화요일 개강, 오전 10시 ~ 오후 17시까지
◈ 준 비 물 : 필기도구, 녹음기
◈ 수 강 료 : 월 10만원
◈ 교육장소 : 전통사찰 안정사 교육원(강원) 승헌스님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888번지)
◈ 문의전화 : 055)649-6711, 010-8533-6775 / 팩스 055)649-6712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